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새로운 100년 위한 도전’



4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범국민홍보단 출범식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강태선 (사)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권혁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장, 안규백 세계의원연맹 총재를 비롯한 여·아 2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단 출범식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새만금 잼버리 성공 위해 ‘범국민 홍보단’ 이 나선다

국회서 출범식 개최... 약 60여명 실무진들이 캠페인 추진
안규백 세계의원연맹 총재 등 의원 20여명 명예홍보대사
광역지자체별 범국민 홍보단 독려·D-10 콘서트 등 개최

오는 8월 새만금 일원에서 펼쳐질 세계 청소년들의 축제인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위한 범국민 홍보단이 출범했다.
홍보단 출범식은 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라북도지사와 강태선 (사)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권혁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장, 안규백 세계의원연맹 총재를 비롯한 여·아 20여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단 출범식이 성황리에 열렸다.
범국민 홍보단은 김관영 전북도지사, 강태선 총재와 여·아 20여명의 국회의원을 명예 홍보단장·대사로 위촉해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제17회 세계잼버리를 강원도에서 개최한 후 이번 새만금에서 제25회 세계잼버리를 두 번째로 개최하게 돼 세계잼버리를 2회 이상 개최하는 6개 국가 중 하나로 세계스카우트 회원국으로서 위상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범국민 홍보단 출범이 새만금 세계잼버리 범국민적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원동력이 될 것이다”며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청소년 축제를 넘어 온 국민의 축제가 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에 권혁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장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개최를 위해 다시 찾고 싶은 한국 함께해요 우리 함께하는 한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스카우트를 소개하고 참가자 추가모집 독려와 세계잼버리의 올바른 이해를 돕는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범국민 홍보단은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 소속의 비영리 기관으로 약 60여 명의 실무진들이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을 위해 홍보 및 참여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범국민 홍보단 조직을 독려해 새만금 세계잼버리의 성공개최를 위한 제반 활동을 전개하고 D-10 콘서트 등을 추진하여 범국민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낼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전라선 SRT 고속열차 올 추석 전 신규 운행

수서~여수 구간 매일 상·하행 2회씩 총 4회
전주·남원서 경기 동남부 환승 없이 직통 이동
도, KTX 전라선 고속화도 추진... 철도이용 활성화

전북도는 오는 9월 추석 전에 수서~여수 구간을 매일 상·하행 2회씩 총 4회를 신규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주, 남원에서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경기도 동남부지역을 환승 없이 직통으로 이동할 수 있게 돼 시간적·경제적 절감 등 교통편익이 증대됐을뿐만 아니라 고속열차 운행 횟수 증가로 전라선의 민성적인 좌석 부족 현상 해소와 외래 관광객 유입 증가로 인한 도내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수서행 SRT의 전라선 신규 운

행은 국토교통부가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전라선(익산~여수), 동해선(수서~포항), 경전선(동대구~전주) 등 3개 노선 SRT 투입 확대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수서행 SRT는 그동안 호남선(익산, 김제, 정읍)에 국한해 운행됨에 따라 전주와 남원 등 전라선 운행 지역 주민들은 서울역 혹은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KTX 고속열차만 이용할 수 있어 불편함을 호소해 온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그동안 도민들의 철도 이용 애로사항과 고속열차의 추가 신규 운행 필요성에 대해 국토부, 코레일 SR 등 관련기관과 기업을

수 차례 방문하며 SRT 신규 운행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김윤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우리 지역의 숙원인 SRT 전라선 운행이 실현돼 도민들의 철도이용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어 기쁘다.”며 “현재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전타당성조사 중인 전라선 고속화(익산~여수)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해 이동시간 단축, 이용 편의성 증진 등 철도 이용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규 운행을 위해 노선운행 면허, 안전관리계획 변경 승무원 교육, 예·발매시스템 정비 등 후속 절차 이행이 필요하며, 전라선 수서행 SRT 운행과 더불어 동해선(수서~포항), 경전선(대구~전주) 등도 올 추석 전에 동시에 개통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선 KTX 고속열차는 주중 30~37회, 주말 39~40회가 운행되고 있다. /김재훈 기자

도, 진안군 등 5개 기관과
용담댐 수질자율관리 평가
5개 분야 27개 지표로 진행

전북도는 2023년 용담댐을 둘러싼 진안군, 장수군, 무주군과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총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용담댐 수질자율관리 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용담댐 수질자율관리 평가는 2005년 ‘용담댐 수질개선 유지관리를 위한 협약’에 따른 것으로, 용담댐을 건설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자주적인 노력을 통해 1등급 수질을 유지할 수 있다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유예를 요청했다.
이에 도에서는 진안군·주민·수자원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2007년부터 2년마다 수질자율관리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접해 있는 장수군과 무주군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2021~2022년 수질 개선을 위한 하수, 축산폐수 등 환경기초 시설 확충 및 관리, 점·비점오염 저감정책, 용담호 호소관리, 농배수로 관리 등 이해당사자간 수질관리 협력체계 구축, 주민자율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확산 운동 호소수질 목표 달성 정도 등 5개 분야 27개 지표로 진행된다. /김재훈 기자

오늘 전주·군산서 재선거 실시

전북선관위 투표 안내... 투표시간 오전 6시~오후 8시
코로나19 격리자는 오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

전주시 서신동 등 9개동에서 국회의원을 군산시 해신동 등 5개동에서 시의원을 뽑는 재선거가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전라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인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여권 등이거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돼 있는 본인의 신분증(모바일 포함)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코로나19 격리 유권자는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투표를 마친 후 오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격리 유권자는 신분증과 함께 코로나19 양성 통지 문자메시지 등을 지참해야 한다. /김재훈 기자

http://chunhyang.org

빛 춘향, 을그리다

2023.5.25^목
~ 5.29^월

제93회 **남원** 춘향제
Chunhyang Festival

·주최 | 남원시·후원 | 전라북도

·주관 | 제93회 춘향제전위원회·후원 | 전라북도